

선량한 사마리아 사랑

유대교의 사고방식에는 아주 옛 날부터 병

유대교의 사고 방식에는 아주 옛 날부터 병은 죄에 대한 벌, 혹은 신의 역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왔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이와 같은 관계가 일반에게 받아들여 지도록 내버려 두었으므로 점차 병은 일종의 죄와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용이한 것처럼 그죄를 참고 견디는 것이 병에 대한 유일한 처치 방법이였고 신의 은총만을 기대 하였다.

이 그림은 오토 3세 (10세기후반) 황제의 복음서에 그려진 선량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서 동포에 대한 동정의 교훈, 그리스도 교도의 자선에 대한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바이에른 주

국립도서관(뮌헨)소장〉



세창치과기공소

752-5970, 778-8687

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18 (금정빌딩 302)

대표 권혁문